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지난 8월 3일(금)~4일(토)까지 진행된 학생·청년부 여름수련회를 교우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오늘 주일낮예배 시간에는 매월 첫 주마다 가지는 성찬예식이 있습니다.
4. 다음 주일낮예배 기도담당은 신태식 장로님입니다. 오후찬양예배는 전교인수련회로 없습니다.
5. 다음 주일은 '전교인 여름수련회'를 가집니다. 주일낮예배 말씀은 안병만 목사님(열방교회 담임)이 전해드립니다. 교우들은 일정조정 잘하시고 참석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8월 5일	8월 12일	8월 19일	8월 26일
예배기도(오전)		김윤식 장로	신태식 장로	권용기 집사	오진석 집사
예배기도(오후)		정진숙 권사	전교인수련회	유숙정 권사	김경미 권사
주일식사담당		한나 목장 (이영선 권사)	참치회덮밥 (이영선 권사)	에스더 목장 (오효근 권사)	아가페 목장 (최윤정 권사)
토요일청소		주사랑목장 (8/11)	갈렙·아론목장 (8/18)	에덴목장 (8/25)	둘로스목장 (9/1)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8월 12일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2. 남·여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4. 병환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양강암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쉼터(국내) 사역자를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27번지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경독	교독문 66번(시편 150편) 다같이
*경배찬송	27장(통 27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285장(통 209장) 다같이
대표기도	김윤식 장로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시 139:13-18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이땅에존재하는이유' 허영진 목사

성례전

권면	집례자
제정의말씀	집례자
성찬참여	다같이
성찬후기도	집례자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다같이
*결단송	620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허영진 목사

경배와 찬양	찬양인도 : 신재준집사 다같이
묵상기도	은혜를 구하며 다같이
찬송	353장(통 391장) 다같이
기도	정진숙 권사
특별찬양	누구든지
성경봉독	막 2:1-12 인도자
말씀선포	'네믿음이어디있느냐' 허영진 목사
기도	허영진 목사
교회소식	인도자
찬송	304장(통 404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요 8:39-47 '삶에 무엇을 담고 삽니까'	허영진 목사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올바른 기도를 향한 과녁'(43)	허영진 목사

새벽기도회	새벽 5:30 시편 묵상 (월~금) 시 83:1-18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입니다'(1)-(5)	허영진 목사
-------	---	--------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믿음이란, 편암함을 깨는 것'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 보자.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TV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일이다. 사회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패널 주부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다시 태어나도 현재의 남편과 같이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현재의 남편과는 절대로 함께 살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황한 사회자가 객석에 있는 방청객들에게 다시 물었다. 그러자 앞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었다. 사람들은 이 할머니를 보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다. 사회자는 진실한 사랑을 하며 사는 부부를 만났다고 말하면서, 할머니에게 마이크를 대고 다시 물었다. "할머니, 정말 다시 태어나도 현재의 이 남편분과 살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물론이지요. 우리 남편을 길들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지금의 남편이 맘에 들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아까워서라도 다시 살겠다는 뜻이다. 이것은 우리 안에 도전하고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습성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래서 새로운 일에 도전 하고 자신의 삶에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처럼 쉬운 것만은 아니다. 새로운 변화에는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뒤따라야 하고, 또 익숙해지기까지는 무척이나 힘들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란 듯이 자꾸만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한다. 익숙함에 머물면 더 이상 성장이란 없다. 따라서 새로운 변화에 대해 잘 도전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 싶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편안한 현실에 매여 있기 보다는 때로는 편안함을 깨고 새로운 일에 도전 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변화되는 것이 불편하고 눈에 확실한 그 무엇이 보이지 않기에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도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다시 말해 절망적인 환경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위로함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무덤다고 지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떨쳐 일어나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다 보면 언젠가 선선한 바람이 불어 올 날이 있을 것이다.

Written by 허영진